

“화학 넘어 삶을 연결하는 과학으로”... ‘뉴 비전’ 선포



LG화학 14년 만에 정체성 재정립
디지털 선포식 갖고 비전 발표
‘과학-삶’ 담은 새 슬로건 공개
전 사업부문 조직문화 혁신도
“글로벌 기업 도약의 새 이정표”

LG화학이 ‘화학’을 뛰어넘어 ‘과학’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한 뉴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LG화학은 7일 신학철 부회장 및 각 사업본부 대표 임직원 20여 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전체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라이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LG화학은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뉴 비전은 모든 분야의 지식체계는 물론 지금까지 LG화학이 축적한 지식과 기술, 솔루션이라는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들고, 고객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LG화학이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7일 디지털생중계를 통해 LG화학 새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14년만이다.

이날 신학철 부회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과학과 우리가 축적한 과학으로 깨지지 않는 화장품 뚜껑부터 세상에 없던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기까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사업모델을 진화시키고, 전혀 다른 분야와 융합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 넘는 가치를 만들어갈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새로운 비전 선포는 LG화학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새로 선정한 슬로건 ‘We connect science’도 함께 발표했다. 새

로운 슬로건은 과학이 인류의 삶과 연결돼,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Connect’의 알파벳 ‘C’와 ‘O’를 연결해, 무한대 기호(∞)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로는 ▲고객가치중심 ▲민첩성 ▲협력 ▲열정 ▲지속가능성을 선정했다.

LG화학이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게 된 이유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 속에서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화학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기존 비전 체계를 수립한 과거와 달리, 현재 LG화학은 석유화학, 전기, 첨단소재, 생명과학부

문을 성장축으로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했다.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에서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DNA를 진화시키면서 화학 기반의 사업 구조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또한 초연결과 초지능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고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고객이 LG화학에 기대하는 가치를 변화시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LG화학은 이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부문은 이산화탄소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맞춰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공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부문은 글로벌 자동차업체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사업운영 역량을 높이고 공동연구를 확대해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e-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한다.

첨단소재부문은 양극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배터리 소재 사업 발굴을 위해 글로벌 소재 업체와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부문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타겟 발굴 및 알고리즘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암세포 변이 예측 프로그램 보유 기업과 협업해, 항암 치료 백신 개발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뉴 비전 선포에 맞춰 사업 전반에 걸친 조직문화 혁신에도 나선다. ‘과학과의 연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분야와 적극적으로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가 실제 조직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리더십 육성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과 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아울러 전 구성원이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CEO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비롯해 미국, 폴란드, 중국 등 해외 사업장의 임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등 글로벌 임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간다.

신학철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노력은 물론 전방위적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R&D 뿐만 아니라 생산, 구매, 영업 등 다양한 직군별로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 세일즈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구성원 모두 ‘과학과의 연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G화학 배터리, 中·日 제치고 세계 1위... 첫 ‘왕좌’ 올라

글로벌 점유율 일본 파나소닉 제쳐
2배 증가... 포트폴리오 다양화 주효

LG화학이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등을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위와 7위를 기록해 국내 3사 모두 톱10을 유지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변수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가운데 27.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0.7%) 대비 2배



LG화학 여수공장. /뉴시스

이상 급증한 수치로, 특히 집계 이래 처음으로 시장 1위에 올랐다.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중국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대한 공급 영향으로 이 같은 기록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SNE리서치는 “LG화학 배터리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3, 아우디 E-트론, 르

노 조에 등의 판매 호조로 탑재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위는 파나소닉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테슬라 공장 공급 물량이 줄었지만, 중국 업체의 위축으로 점유율은 3.8% 증가해 25.7%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CATL과 BYD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장

1위 업체 타이틀을 선점했던 CATL은 1분기 점유율이 지난해 23.4%에서 17.4%로 주저앉았다. 또한 BYD는 4.9%를 기록해 작년 동기(15.1%)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내 배터리 3사의 1분기 합계 점유율은 37.5%로 작년 동기(16.4%)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삼성SDI는 6%, SK이노베이션은 4.5%를 기록해 각각 4위, 7위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폭스바겐과 BMW, SK이노베이션은 현대기아차 판매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게 SNE리서치의 설명이다. 국내 배터리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공급처 다변화가 강점이기 때문.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제품 경쟁력을 앞세운 분산 전략으

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풀이다.

LG화학의 주요 고객사는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미국의 GM·포드·크라이슬러, 유럽의 폭스바겐·르노·볼보·아우디·다임러·메르세데스벤츠·재규어·포르쉐, 중국의 지리 자동차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3의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 의존도가 심해 점유율이 테슬라 실적에 따라 크게 요동치고,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도 중국 완성차 업체에 주로 배터리를 공급한다”며 “상대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현지 업체와의 선두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자율주행 심야셔틀 ‘마중’ 배곧신도시 달린다

LG유플러스-서울대-오토모스
자율주행 시범사업 본격 착수

LG유플러스는 서울대학교, 오토모스와 함께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심야셔틀 서비스 ‘마중’을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심야시간에 운영한다.

오이도역과 배곧동을 오고가는 대중교통은 짧은 운행시간과 긴 배차간격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주거지역 도보권 연결 정류장 배치 ▲주행안전성 보장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5G 기반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및 차량-도로인프라 통신 서비스를 제공

한다. 특히 초정밀 측위로 구축된 정밀 지도를 제공해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운행을 지원한다. 서울대학교는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오토모스는 자율주행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1차적으로는 올 10월까지 4호선 오이도역에서 정왕동 주거지역에 이르는 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 말까지 총 5개 노선에 8대 셔틀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GS칼텍스 “온라인 심리치료로 학생 마음 방역”

집단예술치유 ‘교실힐링’ 지원

GS칼텍스가 입학 초기 부정적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 ‘교실힐링’을 온라인으로 개발하고 학생들 지원에 나섰다.

GS칼텍스는 이달 6일부터 1학기 동안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 600여명, 89개 집단을 대상으로 8회기의 교실힐링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실힐링은 생소한 환경에서 관계 맺기 등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GS칼텍스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GS칼텍스 온라인 교실힐링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한다. 한 화면에서 예술치료사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양방향 소통함으로써 기존 대면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평가다. /김수지 기자